

재미나는 표준이야기



표준을 알고 건강하게 음주 합니다

맥주 8% 이하, 와인 9%~15%, 위스키 35%, 브랜디 40%, 소주 19.5도(%), 보드카 40%이상 술의 표준 알콜농도를 알아야 건강하게 음주할 수 있다

토요일의 늦잠을 방해라도 하듯 울러대는 핸드폰 벨소리.

"여보세요~ 표 준형입니다." 잠결에 표 대리는 전화를 받는다.

"어이, 준형! 나야 나, 명세. 아직 자냐?" 전화에서 나오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대학 동창 유 명세다. 이 친구, 미국 아이비리그 MIBA 코스 밟는다더니, 벌써 끝내고 돌아 왔나보다.

"어, 그래, 명세구나. 반갑다. 어니야?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이제 아주 귀국 한 거야?"

유 명세도 반가운 듯이, 그리고 왠지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한 어투로 대답한다.

"그럼, 지난달에 아주 들어왔어. 오늘 저녁에 나와라. 나들 모이기로 했다."

"그래, 그러자. 오랜만에 다들 반갑겠네. 뭐? 무교동 거기? 그럼 알지. 그래, 이따가 보자."

유 명세의 전화에 잠이 확 달아나버린 표 대리는 일어나서 식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아내와 집안 청소를 하고 아들의 숙제 봐주기를 끝내고 나니 어느덧 오후 5시가 되었다. 모처럼 생긴 내화동창들 모임을 위해 머리에 왁스를 발라 힘도 주고, 아끼던 셔츠도 꺼내 입는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지 몰라. 다녀올게."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약속장소로 향하였다.

예전엔 꽤 자주 모임을 갖던 전통주점에 이미 열 명 이상 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표 대리,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부쩍이나 반갑다.



"야, 명세야. 너 미국 다녀오더니 정말 뽀아졌구나. 신수가 환하다. 귀국 축하한다.

지금 어디서 일하냐?" 벼 표 대리가 가장 궁금했던 명세의 직장부터 묻는다.

"응, 고맙다, 준형아. 직장이야 뻔 하지 뭐. 미국계 IB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다. 하하."

명세가 표 대리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하자 "미국계 IB..., 한국지사..., 라고?" 표 대리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응, 그래. 투자은행 말이야. 인베스트먼트 뱅크. 머니 마켓에서 일 하고 싶어 공부부 했으니, 그

쪽으로 가야지. 안 그래? 자, 우리 준형이도 왔으니 다 같이 건배 한 번 하자." 명세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일행 중 일부는 귀가 하고 나머지는 명세의 고집대로 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명세의 안내가 마분안주 등을 준비해줬다. 명세는 냉장고에서 맥주 몇 병을 꺼내 오더니, 방으로 들어가 양주를 한 병 가져오며 자랑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술은, 이 꼬냑이 진짜야. 양주의 제왕이라고 하잖아. 향도 좋고. 자, 우리 다 같이 건배 한 번 하자." 명세의 제안에 모두들 건배를 하고 한 모금



씩 마시자 그 중 한 친구가 말한다.

"난 술은 역시 소주가 제일 편하다. 양주의 제왕이고 뭐고, 이 양주들은 너무 독해서 부담이 돼. 비싸기도 하고." 라는 말에 바로 이어 또 한 명의 친구는 질문을 던진다.

"꼬냇은 도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 이 질문에 명세가 바로 말을 꺼낸다.

"진, 보드카, 브랜디는 대부분 40%야. 리큐르도 최소 40%는 되겠고." 라고 하자 꼬냇의 도수를 물었던 그 친구가 다시 묻는다.

"아니, 진, 보드카, 브랜디 말고 꼬냇의 도수가 얼마냐고. 빛 도나 되는거야?" 명세, 이번엔 웃으며 여유 있게 대답을 한다.

"꼬냇이 브랜디잖아. 브랜디는 과실을 원료로 한 술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오래 저장해 만든 걸 통칭하는 거고, 꼬냇은 이 중에서 와인을 증류해 만든 술이야. 그리고 브랜디의 알콜 함량이 40%라고, 내가 말하는 40%를 40도 라고 하면 답이 되겠군."

명세의 말에, "술의 알콜 함량 측정방법이 1800년인가 정해졌는지 아냐? 거기서 발전한 게 지금의 표준 알콜 농도 측정법이 되고, %로 표시하게 되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암튼 그래." 표 대리도 거들어 보지만 명세가 바로 말을 받아 잇는다.

"그래, 맞아. 1700년대까지는 화약을 술에 붓고 불을 붙여서 알콜 농도를 측정했고 불이 붙는 정도를 프루프 단위로 표현했지. 그러다 1802년에 주정계가 발명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100 프루프를 환산해보니 알콜 농도가 57.1%였다는 거야. 추후에 미터법이 국제적으로 제정되고 나서, 알콜 농도는 %로 표시하도록 표준화 되었어."



알콜농도는 국제적으로 미터법에 따라 %로 우리나라는 주정도라 하여 도 단위로 표기

우리나라는 술 100ml에 들어있는 알콜의 ml를 알콜 농도로 표시하고, '주정도' 라고 해서 '도'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부피의 %랑 같은 의미라, 40도는 40%랑 같은 말이야. 국제표준화에 맞춰, %를 써 버려 하자고, %를."

명세가 그 사이 벌써 취기가 도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서 한다.

"야, 너희들, 과음은 절대 하지 마라. 간이 감당할 정도의 알콜만 마시라 이거야. 흔히 주량이라고 들 하잖아, 그 주량을 아무 기준 없이 소주 한 병이요, 두 병이요, 이럼 안 돼! 간 기능이 원만히 유지되는 차원에서 간이 해독해 낼 수 있는 알콜의 중량을 알아야 자신의 주량이 나온다구. 바로 체중에 0.1을 곱하고 거기에 24를 곱하는 거야. 내 주량 계산 한 번 해볼까? 내가 70킬로니까, 70에 0.1을 곱하고..., 음..., 또 여기에 24를 곱하니까... .., 난 얼마나? 아이고... .., 응?"

꼬냇을 과하게 마셨는지, 허 꼬인 소리로 얘기하던 명세가 테이블에 엎드려버린다.

[표준 TIP]

술의 알콜농도와 간의 해독능력 알고 과음하지 마시다!

자신의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알콜의 중량을 계산해 술의 알콜 농도로 나누면 그것이 자신에게 적당한 주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체중(kg) × 0.1(g) × 24(시간)} ÷ 2 =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총 알콜의 양

체중 70kg인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총 알콜의 양은 84g이 됩니다.

※ 84g에 해당하는 알콜의 양(cc) = 84g ÷ 술의 알콜 농도(%)

알콜 농도 4%의 맥주는 2100cc(약 8잔), 알콜 농도 19.5%의 소주는 431cc(약 1여 병, 8잔)

따라서 이 사람의 주량은 맥주 기준 약 8잔, 소주 기준 약 1병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술의 알콜 농도는 표준 측정법에 따라 %로 표시됩니다 (이 때 %는 우리나라의 주정도와 같은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의 용기에 표시된 표준 알콜 농도를 보고 자신의 주량을 대략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숨어있는 여러 형태의 표준은 이렇듯 우리의 음주 습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